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사역 소식: 2024년 7-8월

사랑하는 동역자 및 후원자 여러분, 살롬!

여러분 한분 한분과 함께해주시는 사랑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사역 프로젝트가 운영과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아랍인들을 위한 재활 센터용으로 임대할 적절한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위치(라물레의 특정 지역이 아니면서 다른 가정집과 너무 가깝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아비브 아웃리치 센터



텔아비브 남부의 자원봉사팀을 통해 주님이 하고 계신 모든 일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비브 센터에서 봉사할 때는 항상 방문객에게 거리를 떠나 재활원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지만, 보통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리더 중 한 명인 이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아비브 센터의 교대 근무를 위해 도착했을 때, 식료품을 다 옮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음식은 언제 준비되나요?"

"이제 음식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니 두 시간 후에 되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래 노숙하셨나요?"

디마*는 말했습니다. "3년 됐어요. 마약 때문에 아내와 이혼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한 마약 중독자 출신의 간증을 그에게 들려주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으며 제 삶을 바꾸고 싶었는지, 예수님(예슈아)이 저를 어떻게 찾아 오셨는지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디마*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네, 예슈아께서 도와주셨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숙과 마약으로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메시아닉 재활 센터에서의 시간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디마*는 말했습니다.

"예슈아께서 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쨌든 저는 유대인이라 그를 믿어서는 안
되지만..."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슈아께서도 유대인이었고, 최초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뭐죠?"

"저도 유대인인데, 예슈아를 믿어요!"

디마*는 웃으며 예슈아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비브 센터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했고, 그날 근무를 마친 후 디마*는 저와 함께 재활 센터로 갔습니다!
그가 구세주 예슈아를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와 아쉬켈론의 신규 이민자 지원 사업 프로젝트 리더 에두아르드의 보고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민자의 수가 증가했으며, 저희는 아쉬켈론으로 온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연금 수급자이거나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가족들에게 음식과 옷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이민자들은 이미 도움을 준 가족들로부터
저희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은 저희를 위해 놀라운 만남을 인도하십니다. 일례로
최근에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노년의 장애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리고온 뒤,
음식과 오디오 성경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나섰을 때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혹시 새로 이민 오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질문에 놀랐지만 그녀는 제 설명이 끝나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음식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만약을 대비해 항상 차에 몇 개의 여분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하며
남편과 자신이 연금 수급자이고, 시골에 새로 와서 친척도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할 곳을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처 정보를 건네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내와 함께 카페에 갔는데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젊은 웨이트리스 베로니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사셨어요?"

그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민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살던 도시에 머무는 것이 위험해져서 어머니와 함께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폴란드로 갔고(유대인이 아니라서 알리야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베로니카는 혼자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고, 얼마 후 베로니카는 직장을 그만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초대하여 음식 패키지를 전하고 중고 옷을 고르게 했습니다.



베로니카를 비롯하여 저희가 만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도브 & 올가 비카스, 그리고 아비브 사역팀

사역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거나, 후원을 하시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avivministry.com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Tel/WhatsApp.: +972-544-997336

Aviv Ministry

dovbikas@gmail.com